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성... 독립유공자 예우강화... 시민참여행사

그날을 기억하는 서울시의 자세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효창독립 100년 공원 구상안'을 밝히며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쓴 많은 독립운동가가 묻힌 곳"이라며 "임시 정부 100주년의 정신을 담아 효창공원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 8명의 독립운동가가 잠든 효창 공원은 2024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과거 덕구사 전경

㉞ 서울시 임정 100주년 사업

독립운동 6개 랜드마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성,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시민참여 행사 교육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첫해에만 112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2017년 2월 독립운동 관련 6개 랜드마크 건립을 골자로 하는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안국역 항일 독립운동 테마역사 ▲독립운동가 추모 전시관 '만인의 방' 설치 ▲삼일대로 일대 '3.1운동 대표가로' ▲딜쿠샤 복원 ▲남산 예정자락 일대 '역사 탐방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딜쿠샤 복원만 연기돼 아직 진행 중이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설계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당선작과의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송에 휘말려 착공이 미뤄졌다. 지난 1월 법원은 건축사 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념관은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8774㎡ 규모로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건립된다. 사업비로는 총 473억원이 배정됐다. 딜쿠샤 복원은 무단점거자 퇴거가 늦어지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시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의 작품 '만인보'에 수록된 김구 어머니 과낙원과 이육사, 장준하 등의 독립운동가 업적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고은 시인의 서재를 그대로 옮겨 서울도서관에 조성됐다. 해당 전시 공간은 시인의 성추문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철거됐다.

한용운, 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집터와 가까운 안국역은 지난해 9월 독립운동 테마역으로 재탄생했다.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실시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70.3%는 보유재산은 2억원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인 2억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 사는 독립유공자의 74.2%는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내놨다. 시는 국

2017년부터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첫해에만 112억원 쓰여 안국역·삼일대로 등 서울 곳곳에 '독립운동 랜드마크' 조성중
보훈수당 순차적 100% 인상, 독립유공자·유족 지원 강화키로
임대주택·장례·의료비 지원 등에 4년 동안 예산 2083억 투입



6·25 참전유공자 김종환 씨.

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는 주차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빈소, 인력, 장례용품, 장사 차량, 태극기 관포식을 지원한다.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이들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비는 기존 13억원에서 23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한다. 보훈단체 운영비와 모범 국가유공자 서울시장 표창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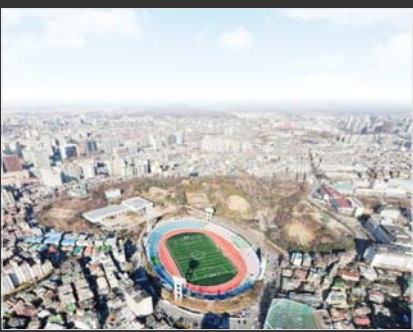
보훈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인프라도 확충한다. 상이군경(전투나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재활, 교육,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을 남부권역에 추가 건립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덕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연구실장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옮겨간 점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수립 의의"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사진=서울시



(위쪽부터) 딜쿠샤 외부전경. 지난 10일 독립운동 기념공간조성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효창공원 일대 전경. 만인의 방.



독립운동 테마역사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100초동만 만날 수 있는 그래픽 '100년 기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대문을 나타낸 역 입구 '100년 하늘문', 3·1운동과 민족사 흐름을 강물로 구성한 영상과 그래픽 '100년 강물', 헌법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0년 헌법' 전시 등이 마련됐다.

3·1운동의 발상지인 삼일대로(안국역~종로2가) 주변에는 독립선언문 배부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등을 중심으로 5개 시민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병탄조약이 체결된 조선통감관저터~조선총독부터(서울애니메이션센터)~일제 갑오역기념비~경성신사터(송의여대)~한양공원비석~조선신궁터(옛 남산식물원)로 이어지는 1.7km 코스는 '국치길'이라는 이름의 역사탐방로로 조성됐다.

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을 목표로 민선 7기 4년동안 총 2083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 1개 뿐이었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까지 수혜자를 확대한 데 이은 조치로 수혜자는 4만1045명에 달한다. 국가유공자 임대주택은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시는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했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공

제58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5월 15일~6월 5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4주차는 6월 4일(화) 6월 5일(수)
- (주말반) 2019년 5월 18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음션) : 300,000 → 130,000원
5월26일(일), 6월 2일(일), 6월 4일(화)

강사: 박원순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